



‘파친코’의 한장면

‘오징어게임’ 이은 ‘파친코’

미국 크리티컬스츠협회
최우수 외국어드라마상
‘기생충’·‘미나리’ 포함 4년 연속
‘우영우’·‘헤어질 결심’은 불발

애플TV+ 드라마 ‘파친코’가 미국 크리티컬스츠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았다.

크리티컬스츠협회(CCA)는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28회 시상식을 열고 외국어 드라마상 수상작으로 ‘파친코’를 선정했다.

크리티컬스츠는 미국·캐나다의 방송·영화 비평가 600여 명으로 구성된 크리티컬스츠협회 주관 행사로, 1996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파친코’는 함께 후보에 오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비롯해 ‘1899’(넷플릭스), ‘여중리 비르기트’(넷플릭스), ‘가르시아’(HBO 맥스) 등 경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한국계 드라마는 지난해 ‘오징어 게임’에 이어 2년 연속 크리티컬스츠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21년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를 포함하면 한국 관련 작품은 4년 연속 수상이다. ‘미나리’는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 가족 이야기를 그린 미국 영화다.

‘파친코’는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재일조선인 4대에 걸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그린다. 애플TV+가



드라마 ‘파친코’ 출연 배우들이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페어몬트 센추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8회 크리티컬스츠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제작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작품으로 제작비 1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1은 총 8부작으로 일제강점기를 겪은 어린 선자부터 일본에 건너가 정착하려고 발버둥 치는 젊은 선자, 시간이 흘러 고국인 한국을 찾는 늙은 선자의 이야기를 두루 다룬다. 미국에 직장을 둔 선자의 손자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담기면서 드라마에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3개 언어가 번갈아 나온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주인공인 선자의 나이 든 모습을, 신인배우인 김민하가 젊은 시절의 선자를 연기했고, 한류스타 이민호가 젊은 선자의 연인으로 출연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주연 김민하가 금빛 드레스를 입고 참

석했다. 같은 부문 후보에 올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연 박은빈과 유인식 감독도 함께 시상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상을 받지는 못했다.

‘헤어질 결심’은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멕시코), ‘서부 전선 이상 없다’(독일) 등과 경쟁했다.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은 ‘RRR: 라이즈 로어 리볼트’(인도)에 돌아갔다. ‘헤어질 결심’은 크리티컬스츠 시상에는 실패했지만, 오는 3월 12일 열리는 아카데미(오스카)에 도전한다. 아카데미는 이달 24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며, ‘헤어질 결심’이 예비 후보로 올라 있는 국제영화상 부문은 5편으로 압축된다. /연합뉴스

내일 개봉... 영화 ‘교섭’ 임순례 감독

“피랍된 한국인 구출 작전 이유 있는 액션 그려봤죠”

“일단 사람을 많이 죽이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총을 쏘거나 사람을 죽일 때 이유가 있는 액션을 해보고 싶었죠.”

임순례 감독이 5년 만에 신작 ‘교섭’으로 관객과 만난다. 탈레반에 납치된 한국인 23명을 구하기 위해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이 벌이는 사투를 그린 이 작품은 휴머니즘을 앞세웠던 임 감독의 전작과는 확연히 다른 결을 띤다. 임 감독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으로 정통 액션신에 도전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에서 만난 임 감독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액션 분야가 있다면 다음에도 (액션 영화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며 웃었다.

“영화를 보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관객 입장에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살인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액션 영화라는 게 관객에게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거니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이번 작품은 임 감독 연출작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영화이기도 하다. 제작비는 168억 원, 손익분기점은 300만 명이다.

임 감독은 “손익분기점을 꼭 넘겨야 한다는 걱정은 오랜만에 하고 있다”면서 “이번 작품이 잘 되면 큰 규모의 영화를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흥행이 중요하다”며 웃었다.

‘교섭’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를 소재로 했다. 2007년 개신교 신도 23명이 선교를 위해 아프간을 찾았다가 탈레반에 납치됐던 실제 사건을 각색했다. 당시 피랍자들은 정부가 여행제한국으로 설정했던 아프간을 선교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임 감독은 “소재가 부담스러운 지점도 분명 있었다”면서도 “주제적 측면에서 뭔가 크게 생각해볼 수 있어 끌림을 느꼈다”고 연출을 맡은 계기를 밝혔다.

영화는 사건 자체보다는 피랍자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외교부 직원 재호(황정민 분)와 현지 국정원 요원 대식(현빈)에 집중했다.

임 감독은 “피랍자들에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영화의 초점이 불필요한 다른 논쟁으로 갈 것 같다고 예측했다. 되도록 영화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프간을 배경으로 한 데 대해선 “아프간에 대해 알려진 게 굉장히 없다 보니 자료 준비도 힘들었다. 요르단에서 로케이션 촬영을 했는데 코로나19로 그 또한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교섭’은 임 감독과 황정민이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이후 20여 년 만에 재회한 작품이기도 하다. “어떻게 연기를 해야 관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축적된 노하우가 많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받았습시다. 현장에서 작품에 임하는 집중력이나 에너지가 대단했어요. 20년 동안 굉장한 프로페셔널이 됐구나 싶었죠.”

현빈에 대해서는 “액션 장면 대부분을 현빈 씨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액션에 관한 감각이 엄청 좋은 배우”라고 칭찬했다.

오는 18일 개봉을 앞둔 ‘교섭’은 전날 오후부터 할리우드 대작 ‘아바타: 물의 길’을 제치고 실시간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왕세자·천재 소녀 로맨스

tvN 사극 ‘청춘월담’ 다음달 6일 첫방

tvN은 내달 6일부터 방송되는 새 월화드라마 ‘청춘월담’에 박형식, 전소니 등이 출연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춘월담’은 정체불명의 저주에 걸린 왕세자와 하루아침에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스 사극이다.

저주받은 외로운 왕세자 이환 역에는 박형식이, 누명을 쓴 천재 소녀 민재이 역에는 전소니가 나선다.

표예진은 민재이의 하나뿐인 벗인 가람 역을, 윤종석은 성품과 학식을 고루 갖춘 병조정랑 한성은 역을 맡는다. 이



왼쪽부터 배우 박형식, 전소니, 표예진, 윤종석, 이태선. /연합뉴스

태선은 세상 모든 것을 연구하는 조선 최고 괴짜 김명진을 연기한다.

드라마 ‘백일의 낭군님’(2018)을 연출한 이종재 PD과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2011~2014), ‘연애의 발견’(2014) 등을 집필한 정현정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2월 6일 오후 8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